

【논문】

세계체계분석과 근대 만주지역 연구

—교집합을 찾기 위한 시론적 모색—

유성희*

【 차례 】

- I. 서론: 세계체계관점과 근대 만주연구의 결합
- II. 근대 시기 '만주' 연구에 대한 이해
- III. 근대 시기 만주연구는 세계체계분석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IV. 근대 만주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체계적 관점
- V. 결론 및 토론

국문초록

근대만주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발전경로 및 역동성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세계체계분석은 국내외 만주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체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큰 관심을 지금껏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 분석과 근대 만주지역연구 사이의 연결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서 수행된 근대 시기 만주연구 논문들을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해보았다. 다음으로 세계체계분석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확인하고 또 극복하는데 있어 근대 만주지역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근대 만주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체계분석을 접목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둘 사이의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했다.

주제어: 근대만주, 세계체계분석, 지역연구, 만주국, 만주연구

*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조교수.

I. 서론: 세계체계관점과 근대 만주연구의 결합

세계체계분석은 국가 단위 분석 대신 초국가적·위계적 연결망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탄생 및 지속을 다양한 시간대 및 지역들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나름의 강점을 가진 접근법이다. 세계체계분석에 초석을 놓은 이매뉴얼 윌러스틴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부터 초국가적 분석단위인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었고,¹⁾ 또 아프리카 연구를 하고 있던 당대 여러 지식인들(존 페이지(John Fage),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 월터 로드니(Walter Rodney), 사미르 아민(Samir Amin) 등)과 지적 교류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한 자신만의 세계체계 방법론을 구축해냈다.²⁾ 윌러스틴이 세계체계분석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여러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세계체계분석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 분과학문의 제한된 인식 태도 및 단기간의 시간적 변화와 미시적 공간에 대한 틀을 넘어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을 얻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 도시, 국가 등의 변화와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체계 연구자인 리차드 리(Ricahrd Lee)는 메타역사의 중요성과 실천으로서의 세계체계분석이 분과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지역연구의 사회적 변동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것이라 바라봤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관점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 비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세계체계가 가지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접근, 둘째, 초국적 단위체인 세계체계의 논리 및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전체론적·기능

1) 이매뉴얼 윌러스틴, 나종일 외 역, 2001, 『근대세계체계 1: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까치, 19-20쪽.

2) 이광근, 2020, 「세계체계 분석의 형성과 발전: 윌러스틴의 지적 여정과 비판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 44(1), 181-228쪽.

3) 리차드 리, 백승욱·김영아 역, 2011, 「지식의 구조」, 『이행의 시대: 세계체제의 궤적, 1945-2025』, 창작과 비평사, 248-249쪽.

론적 접근, 셋째,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대응 논의 부족. 세계체계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논의는 세계체계 외부에서 세계체계 연구자들에게 던지는 비판만큼이나 내부에서도 강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자넷 아부루고드(Janet L. Abu-Lughod)는 월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론이 가지는 유럽중심주의를 문제 삼았다.⁴⁾ 그녀에 따르면 근대 세계체계가 등장하기 이전 이미 비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세계경제가 등장했었고, 유럽은 당시 이런 비유럽중심의 세계경제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유럽에서 꽃 피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세계체계의 기원을 논하는데 있어 비유럽지역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아부루고드는 월러스틴의 관점이 유럽중심적이라 지적했다. 다음으로 월러스틴은 근대세계체계를 ‘하나의 자기완결적 사회체계’로 간주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국가, 지역, 도시 등과 같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하부요소들을 마치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⁵⁾ 나아가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 내에서 수동적이며, 또 중심부에 의해 부등이 교환을 당해야만 하는 주변부에 대한 부족한 관심, 그리고 주변부의 중심부에 대한 대응답론 부족 등도 종종 비판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곤 했다.⁶⁾ 이런 복합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세계체계 분석이기에 스스로가 가진 이론적·방법론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회과학을 제외한 다른 인문·지리·지역학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근대 만주지역 연구에 세계체계적 관점을 접목 시키는데 의의가

4) Abu-Lughod, Janet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University Press.

5) Aronowitz, Stanley, 1981,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Immanuel Wallerstein's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0(4), pp. 523-520; Kimmel, Michael S., 1982, "Review on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1(2), pp.244-251; Skocpol, Theda, 1979, "Review: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pp.1075-1090.

6) Hall, John R., 1984, "World-System holism and Colonial Brazilian Agriculture: A Critical Case Analysi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9(2), pp.43-69; Hall, Thomas D. 2012. "Incorporation into and Merger of World-Systems." in Babones, S. J and Chase-Dunn,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Routledge, pp.37-55;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있다. 이를 통해, 세계체계관점에 쏟아진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근대 만주연구가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반대로 근대 만주지역의 등장과 이에 기초한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만주지역과 글로벌 역사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세계체계 관점이 유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그동안 세계체계분석에 쏟아진 비판점들에 대한 대안을 근대 만주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계분석과 접목될 수 있는 기존 만주연구들을 보여줌으로써 둘 사이의 교집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서 근대 만주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후, 근대만주연구에서 확인되는 특징들이 어떻게 세계체계분석에 하나의 이론적·방법론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반대로 만주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체계적 접근법 또한 소개하려 한다.

II. 근대 시기 ‘만주’연구에 대한 이해

만주(滿洲)라는 말은 만주어의 만주를 한자 음역으로 표기한 것인데, 그 역사적 기원은 누르하치 때부터이다. 누르하치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 이후 자신의 집단을 만주라 지칭했고, 그의 후계자인 홍타이지는 1635년, “우리나라의 이름은 원래 만주, 하다, 올라, 예허, 호이파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주선(여진)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원래의 만주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누구라도 주선이라고 불렀을 때는 처벌한다”라고 주장했다.⁷⁾ 이때부터 만주라는 이름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만주’라는 역사적 어원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예컨대 미국의 중국 연구자인 오원 라티모

7) 나카미 다사오, 박선영 역, 2013, 「역사 속의 '만주'상」,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19쪽. 청조의 태동기 때부터 만주라는 의미가 등장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박병광, 2017, 「북중국계의 맹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조선인의 만주이주와 초기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23, 5-6쪽; 長山·宋康鎬, 2010, 「manju '滿洲' 명칭 어원분석」, 『만주연구』 10, 205-206쪽.

어(Owen Lattimore)는 “만주를 하나의 단위로 지칭하는 중국어 명칭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만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만주를 구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⁸⁾ 즉 만주라는 것이 중국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리고 소위 제국주의적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명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만주라는 공간이 다시금 해체되었기에, 이를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지칭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런 비결정적 관점에서 김정일 외는 만주를 중국이나 일본 역사로 환원시킬 수 없는 초국가적이고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해석했다.⁹⁾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 만주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북을 지칭하며, 중국에서 바라볼 때 동삼성(東三省) 지역을 일컫는다. 이는 현재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포함한 동북 3성과 내몽골 동부 일대 및 북중국의 하북성 일부가 포함된다.¹⁰⁾ 만주지역은 고래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주요한 생활근거지인 동시에 한민족의 역사와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진 장(場)이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망각되거나 논의될 수 없는 지역으로 간주되곤 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만주지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를 하나의 연구분석단위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만주지역은 한국·중국·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곳이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의 역사나 지리 속에서 섞여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석정이 지적했듯, “중국인들은 근대 시기 등장한 만주국을 ‘위(偽)만주국’이라 부르면서,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할 악몽”으로 간주했고,¹¹⁾ “일부 일본인들은 건국의 이상만을 기억했고, 일본 정부는 만주국과의 관계에 침묵”할 따름이었다.¹²⁾

8) Lattimore, Owen, 1932,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The MacMillan Company, p.7.

9) 김정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17쪽.

10) 김주용, 2013, 「만주의 자연환경」, 『만주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344쪽.

11) “현대 중국의 맥락에서 ‘만주’는 복잡하고 기피해야 할 감정이 담긴 말이다. ‘만주’는 일본제국주의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만주’에서의 감상과 기억을 더듬을 때는 ‘만주’가 아닌 ‘중국 동북’이라고 부른다”(다사오, 2013, 앞의 책, 18쪽).

12) 한석정, 2009, 「총론」,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17쪽.

그러나 만주지역은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으로 이용되어 왔었다.¹³⁾ 나아가 만주지역은 오랜시간 중화 문명과도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해오던 지역이었다. 또 후금시기부터 정묘·병자호란 때까지 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만주족에게 전쟁포로라는 명목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19세기 중·후반부터는 경제생활이 곤궁해진 조선인들이 대거 만주지역으로 이주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갔다(1860년대에는 서간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고, 1880년대에는 북간도 지역으로 다수가 이주했다).

또한 근대 만주지역은 세계열강의 쟁탈전이 된 공간이자¹⁴⁾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이 된 장소였다.¹⁵⁾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이 만주지역에서 경합을 벌였는데, 이 경합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만주지역이었다.¹⁶⁾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합병 이후,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고자 혹은 한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해 새로운 기회를 쫓아 찾아간 곳도 만주였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독특한 ‘비공식 제국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장소도 만주였는데,¹⁷⁾ 이곳에서 일본은 만주를 일본식 근대를 만들어가는 실험장이자,¹⁸⁾ 일본식 왕도(“kingly way”)¹⁹⁾ 및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²⁰⁾를 구현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또한 만주국을 두고 이토 다케오는 ‘환조(幻造)국가’라 호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의 근대적 유토피아를 만주에 실현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음을 뜻한다.²¹⁾ 비슷한 맥락에서 윤휘탁은 만주국이 지향한 복합민족국

13)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만주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14) 다사오, 2013, 앞의 책, 29쪽.

15) 윤휘탁, 2013,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3쪽.

16) 최문형, 2013, 『일본의 만주 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만주와 중국대륙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17) 아마모토 유조, 박선영 역, 2013, 「만주국: 어느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83쪽.

18)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437쪽.

19) Duara, Prasenjit, 1997, “Transnationalism and the Predicament of Sovereignty: China, 1900-1945,”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4), p.1036.

20) Yamamuro, Shin'ichi, 2006. tr., Joshua A. Fogel, *Manchuria: Under Japanese Domin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1) 아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91쪽. 일본이 만주국을

가의 허상을 지적하며, 만주국은 “지배-피지배라는 강요된 통치 질서와 민족적 우열 관계 속에서 차별·냉대·갈등·대립·충돌 등을 경험하며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던 과제(跨界)민족들의 계서적인 집합체”라고 결론 내렸다.²²⁾

만주에서의 경험은 근대 이후 한국의 개발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한석정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근대 국가형성과정,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재건체제의 뿌리가 만주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주국의 에토스가 된 ‘신속’과 ‘근면’이 결과적으로 19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내부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²³⁾ 비슷한 측면에서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는 박정희 시기 권위주의적 국가체제, 박정희 군사독재, 그리고 국가주도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만주국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²⁴⁾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래신깃트 두아라는 만주국에서 나온 국가만들기 프로젝트, 통치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도덕적 힘과 도덕적 교화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대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²⁵⁾

이처럼 근대 시기 만주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분명히 큰 반향을 끌었다. 서구학계 내 근·현대 만주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한 한지현은 왜 서구학계에서 근대 시기 만주 연구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① 만주국 시기 만들어진 근대성 및 권력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된 관심, ② 1930-1940년대 시기 다양하고도 여러 종류의 접근성 높은 사료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한다.²⁶⁾ 이에 비견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만주연구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만주와 관련된 국내 전문 학술지인

유토피아적 근대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논의로서는 윤휘탁, 2013, 위의 책, 27-29쪽을 참고.
22) 윤휘탁, 2013, 위의 책, 487쪽.

23) 한석정, 2016,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24)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25) 두아라, 2008, 위의 책, 436-4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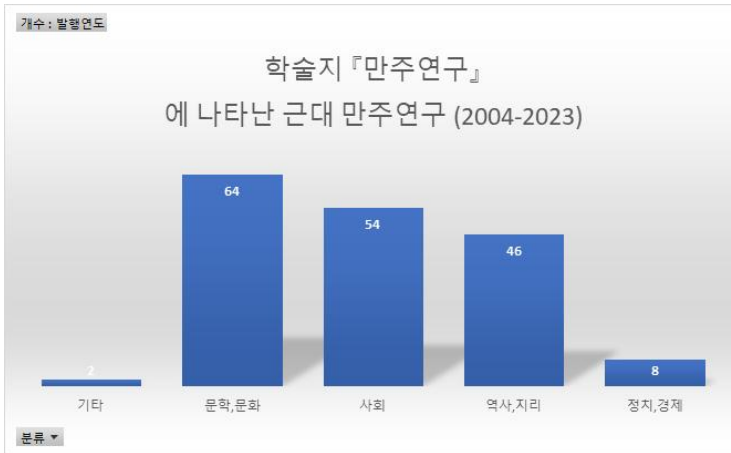
26) 한지현, 2019, 「서구학계 근현대 만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 『만주연구』 28, 157쪽.

『만주연구』 창간호(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된 연구논문들을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해보았다.²⁷⁾ 근대만주에 대한 시기를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라고 가정할 때, 국내 근대 만주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나누어볼 수 있을 듯하다(표 11 참고).

첫 번째 주제는 문학·문화 주제이다. 만주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근대만주지역과 관련된 문학이나 문화연구였다. 문인들의 작품 속에 등장한 만주의 이미지와 표상, 만주지역에 대한 개척서사, 이주민들의 정체성, 일본이 만주국에 투영한 환상, 일본잡지 속에 등장한 만주국의 문예정책 등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전체 174건 가운데 64건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한 주제는 사회(사)분야인데, 이는 54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근대 만주시기 여성성과 젠더정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 조선인 위안부 문제,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촌실태분석, 만주 대학 내 교육방식과 조선인 학생들의 현황,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정치사회학, 만주 건국 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731부대 생체실험 실험에 대한 분석, 한인이주문제 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역사·지리와 관련된 주제로서, 만주지역 내 주요 도시들에서 등장한 개척, 근대, 식민에 대한 분석, 식민지도시 건설, 훈춘 일본인사회의 특징, 일본인들의 만주사 연구에 대한 논의, 남만주 독립군 활동에 대한 논의, 만주 간선철도망 형성 및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들 및 만보산 사건에 대한 연구, 만주국 시기 만들어진 자료분석과 만주지도 등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역사·지리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 174건 가운데 46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정치·경제 분야인데, 이는 총 8건이었다. 정치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랴오닝성 상품유통시장 및 도시체계를 분석한 연구, 만주국 시기 양적 경제를 분석한 연구, 만주국을 국

27) 물론 국내에서 발행된 ‘근대시기 만주연구’가 『만주연구』라는 학술지에서만 생산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근대시기 만주연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국내 만주관련 연구논문들은 총 58건이었고, 이것을 주제별·시기별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2001-2010년대 만주지역의 전반적 역사를 다룬 연구는 1건, 만주 역사지리를 논의한 연구는 3건, 근대 만주지역의 생활·인문·예술·문화·음악 등을 다룬 연구는 11건, 만주지역 사회사·경제사·정치사를 다룬 연구는 1건이었다(총 17건). 2011-2020년대에는 위와 같은 주제방식으로 구분할 때, 각각 5건, 5건, 21건, 6건(총 37건)이었고, 2021-2023년 동안에는 각각 0건, 0건, 3건, 1건으로 총 4건이었다.

민국가체제 속 제국주의로 형상화한 연구, 동아시아 철도를 둘러싸고 벌인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 등이 있었다.



[표 1] 학술지 『만주연구』에서 나타난 근대 만주연구에 나타난 근대 만주연구(2004-2023)

여기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근대 만주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진행된 근대 만주연구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제를 문학·문화/사회/역사·지리/정치·경제 등으로 나눌 경우, 몇 가지 큰 물줄기로 다시금 뭉쳐지곤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① 제국일본이 만주에서 만들어 낸 문화·통치연구, ② 식민지 조선인들의 만주로의 이주, ③ 동아시아 각국의 문인들이 느낀 만주의 재현방식 및 체험, ④ 만주지역(도시)의 역사지리적 특징, ⑤ 근·현대 한국과 만주와의 관계, ⑥ 만주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이다.

Ⅲ. 근대 시기 만주연구는 세계체계분석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앞 장에서 지적했듯,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시기 만주연구는 여러 세부적인 분야들로 나누어질만큼 다양하고도 폭 깊게 연구되고 있었다. 특히 근대시기 만주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한편으로는 더욱 노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청하게끔 하는데, 우선 세계체계가 안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관점과 관련해 근대 시기 만주연구는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첫째, 근대 시기 만주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국주의 세력들은 대서양 너머에 위치한 유럽세력들이 아니라, 태평양 인근의 국가(일본, 미국)이거나 중국 대륙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러시아였다. 이들은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들로써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해양세계를 통한 진출에 비해 적어도 몇 세기 이상 뒤쳐진 국가들이었다(15-16세기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할 경우). 그러나 태평양 국가들(미국, 일본, 러시아)은 19세기를 지나면서 빠르게 산업화 및 근대화과정에 성공했고, 그 결과 대서양 너머의 유럽세력들과 필적할만한 힘과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서구 주요 국가들의 자본주의 전환과정과 달리 농노제도가 유지된 채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18세기에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 기간(1796-1855)동안 면방직 공업을 성공시켰고, 19세기 중반부터 상설거래시장(예) 니제로그드 시장)이 등장해, 전례없는 거래량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의 거래량 또한 증가하였고, 이런 상업적-산업적 성장에 따라 기록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도 했다.²⁸⁾ 이런 경제성장의 질적도약에 힘입어 러시아는 만주 및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는데, 그 시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섰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시베

28) 유성희, 2023, 주경철·유성희 편, 「19세기 태평양 세력의 등장과 메가아시아의 부상」, 『해양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281쪽.

리아에 대한 개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16세기 이반 4세 때부터 시베리아 지역에 관심을 두고 확장을 꾀하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내 확대된 농노화 때문이었다. 농업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확대되자 새롭게 개간할 경작지가 필요해졌고, 이는 변방에 위치해 있던 시베리아지역마저 농경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19세기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의 시베리아로의 진출은 식민주의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에서,²⁹⁾ 서구 유럽국가들의 해외팽창전략과 그 출발점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19세기부터였다. 농경지 확대라는 이유를 제외한 러시아의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은 내·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내부적으로 17세기에 이미 한번 좌절을 경험했던 중국 쪽으로의 진출을 러시아 정부는 다시 시도했다.³⁰⁾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이를 위한 교두보로서 동아시아지역을 탐냈던 것이다. 19세기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한 외적인 원인은 이 지역을 둘러싼 대외정치적 환경과 깊이 연관된다.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³¹⁾ 이 가운데에서도 영국의 동아시아 진출은 러-중 무역관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지역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영국의 아시아로의 팽창전략을 막는 한편 자신들의 아시아 내 이해관계를 지키고 또 확대하기 위해, 19세기 이후 적극적으로 팽창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러시아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다소 늦게 편입되었다.

29) 정세진, 2018, 「19세기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의 과정과 목적-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2(2), 125쪽.

30) 19세기 이전 러시아의 극동지역 진출은 이미 한 번 좌절된 바 있었다. 17세기 중반 포야르코프(1643-1646) 및 하바로프 탐사대(1649-1653)의 청나라 국경지역까지의 진출을 포함해, 바이코프(1654-1656), 페르필리에프와 아블린(1658-1662), 밀로바노프(1670), 스파파리 사절단(1676-1677) 등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청제국을 건설한 만주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중국으로의 진출은 성공할 수 없었다. 오히려 청제국의 공공연한 위협에 굴복해야만 했던 러시아는 청제국과 네르친스크 조약(1689년 8월 29일)을 맺고,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두다료노크, S. M. 외, 양승조 역, 2018,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진인진, 139-144쪽).

31) 두다료노크, S. M. 외, 2018, 앞의 책, 15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또한 빠르게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켰고, 또 해외로의 팽창을 서둘렀다. 일본 내 메이지 엘리트들은 신속하게 정부를 중앙집권화하고 역동적인 경제 변혁을 추진하였고 또 해외 제국주의 모험에 스스로 뛰어들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일본 내 외국인 상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수입대체산업을 주도했다. 관련해 정부는 사쓰마번에서 물려받은 사카이 면방직 공장을 시작으로 1878년에는 2,000개가 넘는 스피들을 보유한 면방직 공장 두 곳을 추가로 매입하여 아이치와 히로시마에 설치했다.³²⁾ 정부는 수출 산업 및 농업의 진흥과 농업기술향상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의 주요 수출 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해 제사공장(filature)이 설립되었고, 여러 실험농장에서는 현대적인 해외 기술을 가져와 적용시켜 보기도 했다.³³⁾ 나아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택하자,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 관료들은 미국을 모방해 일본 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³⁴⁾ 그 결과 일본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주변부의 운명을 벗어날 질 수 있었고, 이후 조선과 만주로의 진출을 공식화했다.

일본에 비해, 미국은 북미 대륙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제국주의적 모습을 갖추어 갔다. 소위 서부로의 팽창을 통해 미국은 자신들만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의 자유로운 정신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의 서부팽창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너머로의 세계까지 뻗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미주리의 상원의원이었던 토마스 벤턴(Thomas Hart Benton 1782-1858, 1821년부터 1851년까지 상원의원을 역임)은 미국의 팽창이야말로 자연의 순리라고까지 주장했다. 미국이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주의 원칙, 종교가 태평양 너머의 나라들(동아시아

32) Crawcour, E. Sydney, 1989, "Economic Change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John W. Hall, Marius B. Jansen, Madoka Kanai,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11-612.

33) Crawcour, 1989, 앞의 책, p.612.

34) Iriye, Akira, 1989. "Japan's drive to great-power status," in John W. Hall, Marius B. Jansen, Madoka Kanai,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38.

국가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미국의 팽창이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³⁵⁾

미국이 이렇게 태평양으로까지의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는 19세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미국의 경제력 때문이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면화무역의 발전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19세기 중반부터 도입한 새로운 농작물 기계들의 사용, 농업교육 및 과학적 농업기법의 도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근대화된 농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남-북 전쟁 이후 서부의 개척과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 및 철도를 위시한 교통 통신망의 확대, 새로운 과학기술 발명 등은 미국 자본가들로 하여금 대규모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의 주요 수입품과의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국내 산업 육성책이 실시 되었는데, 이런 제도적 지원하에 미국의 산업자본가들이 대거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1870년대 미국은 전 세계 GDP에서 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³⁶⁾ 이런 경제력을 발판 삼아 미국은 태평양 너머로의 진출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요약하면, 대서양에 기반을 둔 유럽세력이 아닌,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들이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와 만주지역이었다. 특히 만주지역에 대해 러시아, 일본, 미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 예로 동청철도 건설은 만주지역에 당시 러시아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청일전쟁(1894-1895) 이후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진출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삼국간섭(1895)을 통해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하는 한편 만주지역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동청철도 건설을 진행시켰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동안 러시아의 대만주정책은 러시아의 산업화를 주도하던 재무상 세르게이 비떼(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 1849-1915; 재무상 재임기간은 1892-1903년)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당시 그는 ‘경제적

35) Dudden, Arthur Power, 2004, "Introduction," in Arthur Power Dudden ed., *American Empire in the Pacific: From Trade to Strategic Balance, 1700-1922* Volume IX, Routledge, xxii.

36) 유성희, 2023, 앞의 책, 279-280쪽.

이해관계에 기초한 침투'에 방점을 두고 만주로의 진출을 전개했다.³⁷⁾ 무엇보다 동청철도는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1859)과 북경조약(1860)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얻어낸 블라디보스톡과 북만주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북만주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동청철도를 기반으로 향후 요동반도 및 한반도의 부동항까지의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비뚤은 생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897년 12월 러시아는 뤼순지역을 점령했고, 이듬해인 7월 청나라와 협약해 동청철도에서 뤼순과 다롄까지 철도를 건설할 권리를 획득해, 만주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했다.

한편,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러일전쟁(1904-1905)에서 거둔 승리 이후부터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일본은 다롄과 뤼순지역을 러시아에게 할양받게 되었다. 1905년 9월 5일 체결된 포츠머스조약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러시아 제국은 청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뤼순, 다롄이 포함된 랴오둥 반도 조차권, 창춘-뤼순 간의 철도 및 그 지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재산 및 특권을 일본에 양도해야만 했다. 이 결과 일본은 “중국 영토 안에서 러시아가 경영하고 있던 동청철도의 창춘 이남에서 뤼순에 이르는 부분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고,”³⁸⁾ 일본은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만주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 교두보를 확보한 일본은 1915년 5월 25일 중화민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통해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뤼순과 다롄의 조차 기한 및 남만주철도와 안봉철도에 한 기한 연장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남만주에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영사재판권, 그리고 남만주 지역 내 일본인들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만주장악에 대해 강한 견제를 하면서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삼국간섭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러시아의 만주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은 1899년 9월과 1900년 3월 2차례에 걸쳐 중국무역

37) 최덕규, 2004, 「러시아의 대만주정책과 동청철도(1894-1904)」, 『만주연구』 1, 5쪽.

38) 김영숙, 2017, 「만주사변의 전개와 식민지 조선-조선군과 조선총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183쪽.

에 대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미리 진출한 제국주의 세력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던 미국이기에,³⁹⁾ 외교적으로라도 다른 열강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중국이라는 파이를 나눠먹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문호개방선언을 하면서까지 급하게 일을 진행시킨 또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러시아의 만주와 북중국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⁴⁰⁾ 말로제모프가 주장했듯, 미국의 문호개방선언은 러시아의 “동청철도와 남만주 지선의 번영을 희망한 러시아를 재차 공격”한 것이었다.⁴¹⁾ 이렇듯 미국은 만주 내에서 러시아의 공격적인 팽창을 억제시키려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만주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대서양을 모체로 하는 유럽국가들이 아니라 19세기에 새롭게 세계사에 등장한 제국주의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만주지역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 협력하는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대서양에 기반을 둔 유럽중심의 세계체계분석은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만주지역의 발전사를 해석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세계체계분석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함을 세계체계 연구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근대 만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역적인 동학은 세계체계의 작동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선사해준다. 앞에서 설명했듯, 근대 만주지역에서 형성된 복잡다단한 국가 간 관계는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하나의 거시적·초국가적인 연결망만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전체(the whole)는 분명 국가단위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관계망을 보여주는데 탁월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전체만으로 세부적인 지역사(parts)를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도 심어주었다.

39) Anderson, David L, 1985, *Imperialism and Idealism: American Diplomats in China, 1861-98*, Indiana University Press, p.166.

40) 이삼성, 2020,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한길사, 416쪽.

41) 말로제모프, J., 석화정 역,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지식산업사, 172쪽.

이는 세계체계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하는 셈인데, 이와 관련해 맥마이클(Philip Michael)과 유성희는 각각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맥마이클에 따르면 전체라고 표현되는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그 발전 및 작동방식에 있어 부분들(지역, 국가, 도시 등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통합적 비교방법(incorporating comparison)을 제시했다.⁴²⁾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성희는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만큼, 전체 내에서 부분과 부분의 관계(inter-part relations)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통합적 역동성(incorporating dynamics)을 선보였다.⁴³⁾ 이를 통해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들의 형성과 재형성 과정을 추적하며 그로 인해 이들이 전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전체의 논리 및 동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⁴⁴⁾하고자 했다.

맥마이클과 유성희의 방법론을 차용한다고 할 때, 만주지역연구는 어떻게 세계체계와 새롭게 관계맺을 수 있을까? 우선, 그동안 세계체계적 접근이 가지고 있던 일방향적 역사서술방식(즉, 전체에서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흘러가는)이 아니라, 양방향적 역사서술(즉, 전체에서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만큼 지역에서 전체로도 흘러가는, 그리고 전체가 지역을 바꾸는 만큼, 지역에서 만들어진 역사 또한 전체를 바꾸어가는)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에서 확인되는 미시사가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거시사와 관계 맺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는 뒤에서 후술할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윌러스틴 이래 다수의 세계체계연구자들은 편입연구를 진행할 때, 종종 ‘위

42)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3), pp.385-397.

43) 유성희, 2021,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과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기: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적 역동성」, 『사회와 역사』 131: 253-296쪽; Ru, Sung Hee, 2023, “A Comparison of Weber’s and Wallerstein’s Historical Methods: The Contribution of Weber’s Methods in Developing Existing world-systems Methods,” *Journal of Asian Sociology* 52(1), pp.33-64.

44) 유성희, 2021, 앞의 논문, 278쪽.

에서부터 아래로'(근대 세계체계의 지리적 팽창에 따라 외부지역의 근대 세계체계로의 진입)의 접근을 가정하곤 했다. 그리고는 외부지역의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하나씩 찾아내 세계체계의 논리와 결합시키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만 접근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은 늘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거대한 집합체에 의해 잡아먹히는 수동적-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려질 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입지역은 아무런 능동적-적극적 모습을 가지지 못한 피동적 객체로만 간주될 뿐이다. 이와 달리 양방향적 역사서술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근대시기 만주지역의 뚜렷한 변화들을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연구하면서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편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분명 근대만주지역은 그 자체로 근대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과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또 만주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의 경쟁, 그리고 만주로 이주해 간 여러 민족들, 나아가 만주지역에서 등장한 새로운 근대도시 및 근대국가(비록 괴뢰국가의 형태를 띠었지만)의 등장 및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패망, 이후 등장한 중국 공산당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도 변화무쌍한 장소였다. 예컨대 안산시의 쇼와 제철소는 만주국 시대에 만들어진 산업 인프라였지만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국유기업으로 전환되어 다시금 활용되었다.⁴⁵⁾ 이는 만주지역의 편입 이후, 어떻게 만주지역 내 기반시설이 일본 및 중국 공산당에 의해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런 근대만주지역을 분석하는데 있어, 양방향적 접근방식은 기존 편입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편입지역의 미시적 변화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IV. 근대 만주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체계적 관점

세계체계 관점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근대 만주연구에서 찾았다고

45) Koji, Hirata, 2018, "Steel Metropolis: Industrial Manchuria and the Making of Chinese Socialism, 1916-1964," *Diss*, Stanford University; Zhao, Hai, 2015, "Manchurian Atlas: Competitive Geopolitics, Planned Industrialization, and the Rise of Heavy Industrial State in Northeast China, 1918-1954,"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한다면, 반대로 근대 만주연구에서 세계체계적 관점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표 1]에서 논의한 국내 만주연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에서 진행된 근대 만주연구들은 다양하고도 참신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근대시기 만주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세계체계적 접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 국내 근대 만주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 사이에서 세계체계분석(관점)은 단지 19세기 말 20세기 초 만주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상황 정도만을 설명하는 데에만 활용될 뿐, 근대만주연구를 하는 데 있어 주요한 이론적·방법론적 도구가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세계체계분석으로 근대 만주지역(혹은 반대로 근대 만주(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체계 분석을 활용)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⁴⁶⁾

해외로 눈을 돌릴 경우, 몇 가지 단편적인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세계체계의 3분 도식(중심-반주변-주변)을 동아시아 지역에 활용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일본-한국-만주지역에 이를 대입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은 19세기 말에 있어서 준주변이었다. (그러나) … 메이지의 성공은 일본의 종속화를 맡았으며 중심사회의 초년생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다면 어쩌면 자체의 중심-주변관계를 창출할 수도 있었다. … (1945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아시아의 대부분을 포함한 중심-주변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과도적 체제 내의 가장 알맞은 병합된 지역이었으며 주변의 저개발상태의 특징을 대부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발전함에 따라서 국경을 싫어한다. 그리고 일본의 자본주의는 외부를 향한 확장을 보였다. 마치 하나의 동심원처럼 1차적으로 국내의 식민지, 즉 일본 농민들을 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들 수탈자

46) 윤영인은 12-13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틀로 '세계체계분석'의 효용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연구는 근대시기 만주연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반증하는 사례로 꼽기는 어려울 듯하다(윤영인, 2015,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계체계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의 가능성」, 『만주연구』 20, 181-207쪽).

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한국을 그의 내부식민지로 대치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만주를 추가시켜 한국의 지위를 대신하게 하면서 새로운 외곽을 구성하여 한국에는 일종의 준주변의 위치가 부여된 셈이다. 본국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제도가 식민지적 형태로 이식되었으며 나아가 만주로 확장되었다.”⁴⁷⁾

커밍스의 선구자적 연구로 인해 20세기 전반기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간략한 모형이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한석정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커밍스가 주장한 모형 가운데 ‘조선과 만주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사료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⁴⁸⁾ 특히 조선이 만주(국)를 상대적 경제적 잉여를 흡수했다는 근거가 없기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3분도식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2자관계(일본-만주(국), 일본-조선)가 더욱 가깝다고 그는 지적했다.⁴⁹⁾ 또한 한석정은 세계체계분석이 가진 약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일부 세계체계론자들은 국가의 형식을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한다.⁵⁰⁾ 그러면서 식민국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만주국은 결코 조선의 주변부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석정은 조선과 만주의 위계질서를 해석하는데 있어 세계체계분석은 유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⁵¹⁾

비슷한 맥락에서 두아라의 역시 근대만주연구에 있어 세계체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의감을 토로한 바 있다:

“만주국이 보여주듯, 제국주의적 지배의 구역들은 투자와 경제적 근대화의 패턴이 국민국가의 것을 방불케 하는 ‘지역적 경제블록’의 한 부분으로 재편성될 수 있

47)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35쪽.

48) 한석정, 1999, 「대동아공영권과 세계체계론의 적용에 대한 시론」, 『한국사학회』 33, 917-936쪽; 2003,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학회』 37(5), 55-79쪽.

49) 한석정, 1999, 앞의 논문, 929쪽.

50) 한석정, 2003, 앞의 논문, 75쪽.

51) 한석정의 세계체계분석에 대한 비판 이후, 세계체계분석과 근대 만주지역연구는 물과 기름처럼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한석정 스스로 주장했듯, “세계체계론이 탁월한 거시 이론”(한석정 앞의 논문, 932쪽)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세계체계분석의 적용시점을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끌어올리면, 세계체계분석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체계 분석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었다. 이 패턴은 패권주의적 강대국들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들 다수를 통제하게 되는 2차대전 후에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구성체들의 근저에 있는 민족주의 담론의 정당성이 급속하게 전파된 것은 세계체계론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주의적 권리 뿐 아니라, 남을 배제시킬 상징적 힘을 생성시키는 독자적 힘을 갖게 되었다.”⁵²⁾

그렇다면, 세계체계분석과 근대 만주연구는 평행선만을 그리는, 그래서 결코 서로 간에 교차점이 없는 것일까? 본 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성급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미리 답을 드리자면, 근대 만주연구는 세계체계분석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세계체계분석에서 근대 만주지역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코자 한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대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로의 편입과정’이다. 월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 개념은 그 자체로 초국가적 독립체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위계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체계는 15세기 말 혹은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적 구성체임과 동시에 나름의 시·공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체계는 내부의 운영 메커니즘 및 원리(예) 콘드리에프 사이클)에 의해 특정 시기에는 상승을 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하강을 하는 특징을 지닌다.⁵³⁾

52) 두아라, 2008, 앞의 책, 45쪽.

53) 유성희, 2022, 「세계체계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아시아리뷰』 12(2), 182쪽. 월러스틴은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인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근대 유럽사에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보편적·일방향적으로 받아들여진 발전사(① 도시경제에서 국민경제로, ② 지역공간에서 국민국가의 공간)를 의문시하며, 여기서 지칭되는 국민경제나 국민국가를 어떻게 장기적인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지, 또 국가 간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생변수를 어떻게 국가단위로 환원시켜 설명하지 않고, 보다 고차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월러스틴은 국민국가로의 전환 및 국민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기존의 국가 간 비교분석(cross-national analysis)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것으로는 특정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그려낼 수 없다고 비판한다(Wallerstein, Immanuel, 2004,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동시에, 특정 국가의 근대국가발전과정(혹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가 내부의 동력들 예컨대 지배 엘리트들의 역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관계역학, 정치 및 경제 및 문화구조의 특수성 등만을 관찰해서는 종합적인 그림을 제

동시에, 세계체계를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 놓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윌러스틴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체계분석을 가리켜 이론이 아닌 관점(perspective)이나 분석(analysis)이라고 주장했다.⁵⁴⁾ 즉, 세계체계분석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연속적·불연속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불균등하고도 위계화된 논리로 파악하려는 하나의 해석적인 틀이다.⁵⁵⁾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다 큰 분석단위인 세계체계라는 틀 속에서 근대만주지역의 변화상 및 발전상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창출 및 글로벌한 생산-분배 네트워크 그리고 초국가적 분업체계라는 글로벌한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근대만주지역 혹은 만주국이 담당할 역할을 고민하는 것인 동시에, 만주지역(혹은 만주국)이 근대 세계체계의 위계화된 국가 간 체계 속(inter-state system)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보다 경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는 아마도 ‘근대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로의 편입’일 것이다.

실제 근대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로의 편입은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주는데, 첫째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대 만주지역의 수출지향적 작물이 어떻게 세계경제와 결합되는지이다. 근대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

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관계의 틀을 피력한다. 그리고 국가 간 관계의 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단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체(the whole)이자, 초국가적 체계들(trans-societal entities)가 필요하다고 윌러스틴은 주장했다. 이런 상위체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국가’라는 분석단위를 활용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분석단위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를 물상화시키지 않는 한편(reified),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 간 관계에서 국가를 역사화시키기 위해, 윌러스틴은 국가단위보다 큰 초국가적 단위체를 사용해 국가를 ‘변화가능한 존재,’ 그리고 ‘초국적인 체계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1981,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World-Economy,” in Richard Rubinson, ed., *Dynamics of World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pp.233-262).

54) Wallerstein, Immanuel, 2012, “World-systems analysis as a knowledge movement,” in Babones S. J. and Chase-Dunn C,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Routledge, pp. 515-521.

55) Babones, Salvatore, 2015, “What is world-systems analysis? Distinguishing Theory from perspective,” *Thesis Eleven* 127(1), pp.4-5.

지향적 작물이 어떻게 글로벌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작동방식과 연결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는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가경제의 한 부분으로 상품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만주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연계망 및 상품의 글로벌한 이동경로를 추적해 국가행정 및 국가역량을 파악하고, 또 만주지역 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연결되는 확인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세계체계 분석에 기반을 둔 리차드 에반 웰스(Richard Evan Wells)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만주지역 주요 농산품인 콩이 20세기 전반기 러시아, 중국, 일본 정부 및 민간 기업들 사이에 어떤 경쟁을 불러왔는지, 나아가 만주지역 농산품인 콩이 어떻게 중국의 다른 지역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살폈다.⁵⁶⁾ 이는 월러스틴이 지적했던 편입되는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⁵⁷⁾

둘째, 국가와 자본주의 관계에서 새롭게 태어난 개인의 모습도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국가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관계는 다름 아니라 국가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 확인된다. 자본주의 세계체계 속에서 질서지위지고, 또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논리를 용인하는 국가기구는 개인들에게 자본주의화된 질서를 통해 만들어진 경제생활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지의 표현과 자아실현을 자본주의적 질서와 자연스럽게 합치시키며,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 또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개인들에게 내면화시키곤 한다.⁵⁸⁾ 여기서 개인들은 자본주의 세력과 국가체제에 의해 용인된 새로운 사회관계를 받아들이는 경제적-국가적 주체로 거듭나는데, 이는 20세기 초 만주지역에 거주한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마이어스(Ramon H.

56) Wells, Richard Evan, 2018, "The Manchurian Bean: How the Soybean Shaped the Modern History of China's Northeast, 1862-1945," *Di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57) Wallerstein, Immanuel, 1989, *The Modern World-System Volume III*, Academic Press, pp.138-139.

58) Park, Hyun O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ke University Press, pp.14-15.

Myers)가 지적했듯, 만주에 진출한 일본의 사기업들은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하에 만주지역 경제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이는 이전 중국의 개항장들에서 확인되는 시장친화적 성격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닌 계획주의적-권위주의적-군사주의적 경제체제의 등장이었다.⁵⁹⁾ 그리고 이런 만주지역의 산업체계 속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업무를 맡은 개인들은 만주지역의 독특한 자본주의적-제도주의적 특징들을 내면화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는 만주지역 내 일본인-중국인-조선인이라는 위계화된 개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만주지역 내 서열화된 민족적 차별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지배민족들의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을 양산하기도 했다.⁶⁰⁾

세 번째는 근대 만주도시의 변화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주지역 내 항구도시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성장-근대화·자본주의화된 공간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편입이라는 이론적 관점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근대 만주지역의 도시형성과 발전은 19세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는데, 우선 만주지역 도시들의 발전을 이끈 주체는 만주지역으로의 팽창에 관심을 가진 제국주의 세력들이었다. 유지원이 지적했듯, 아편전쟁 이전 만주의 주요 도시들은 청 조정의 동삼성지역에 대한 정책들(예) 종교와 사직과 같이 종교적 기능을 갖춘 도시형성, 군사적·방어적 기능을 갖춘 도시형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강했다.⁶¹⁾ 특히 만주지역은 청 제국의 발원이 된 지역이자, 만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지역이기에 이곳에 대해 청 왕조는 세심한 정책들을 선보였다.⁶²⁾

그러나 19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외세의 충격에 의한 문호개방이 이루어졌고,

59) Myers, Ramon H. 1996, "Creating a Modern Enclave Economy: The Economic Integration of Japan, Manchuria, and North China, 1932-1945," in Peter Duus,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36-170.

60) Du Bois, W. E. B., 1994, *The Souls of Black Folk*, Gramercy Books.

61) 유지원, 2007, 「청대 동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만주 도시 성격의 변화」,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8-63쪽.

62) Elliot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pp.603-646.

그 때부터 여러 제국주의 세력들이 만주지역 내 주요 요충지들로 들어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⁶³⁾ 취샤오판은 근대 만주지역 도시들의 근대적 전환 시기를 1861년(아이훈조약과 천진조약 체결 이후)로 설정하고, 그 특징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근대 도시상업체계의 등장. 여기에는 외국산 상품들의 유입 및 제국주의 상인들의 진출, 상품시장이 발전하면서 일부 만주도시에서 확인되는 근대 민족공업 및 상업자본가의 출현(매판자본가 포함)이 포함된다. 둘째, 도시 환경의 이원화 또는 다원구조로의 전환 및 대량의 공공시설 출현. 만주지역 내 주요 도시들의 전례없는 근대적 전환은 전통적인 농업문화와 근대적인 상업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갔고, 또 새롭게 형성된 상업적·자본주의적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여러 공공시설들이 설립되고 또 운영되었다. 셋째, 상공업 기반의 시민사회조직이 만들어졌다. 만주 내 주요도시들에서 근대산업 및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상·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자치적이고도 또 때로는 폐쇄적인 조직망을 구축했는데, 이는 부르주아지 조직의 등장인 동시에 자신들의 주체적이고도 도시를 대표하는 시민지도자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⁶⁴⁾

만주지역 내 영구(營口)와 대련(大連)은 상업화 및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이다. 1861년 영국의 강압에 가까운 요청으로 인해 우장(牛莊) 대신 영구가 개항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주요 제국주의 세력들은 앞다투어 영구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또 자신들의 상업활동을 개시했다. 영구가 만주지역과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담당하자, 영구의 항운업 및 상공업은 빠른 시간안에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영구지역을 통해 만주지역의 주요 수출품인 콩이 중국 전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럽시장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근대시기 영구지역이 유럽세력들에 의해 처음으로 개항되었다고 한다면, 대련의 첫 개항은 태평양 세력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었다.⁶⁵⁾ 러시

63) 김영신, 2007, 「개항, 조차와 근대 만주: 신흥도시의 흥기」,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7쪽.

64) 취샤오판, 박우 역, 2016, 『중국 동북지역 도시사연구: 근대화화 식민지 경험』, 진인진, 28-37쪽.

이는 태평양 해안지역에 부동항을 얻기 위해 여러 지역을 살피던 외중 대련에 주목했다. 1896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홍장과 이른바 러청밀약을 통해 전시에 중국 항만을 사용하겠다고 인정받은 러시아는 1897년 독일의 교주만 점령을 근거로 자신들의 군함을 파견해 여순과 대련을 점령했다. 다음 해에 러시아는 여순과 대련지역에 대한 점령권을 연장하고자 중국과 여대조지조약(旅大租地条约)을 맺고 25년간 조차할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이후부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대련항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903년 제 1기 건설공사가 완성된 대련항은 동시에 25척의 2,5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20만 톤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했다.⁶⁶⁾ 또한 러시아는 대련을 유럽-아시아를 잇는 대륙철도와 연결시켜, 바다를 통한 운송 뿐만 아니라 대륙을 통한 운송능력까지 갖춘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대련의 상·공업 또한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1904년 러일전쟁 발발시까지 대련의 총 인구는 약 4만에 달했다.⁶⁷⁾ 러일전쟁 이후부터는 일본이 대련의 도시발전을 이끌었다. 포츠머스조약(1905) 이후 러시아를 대신해 대련의 관할권을 장악한 일본은 대련을 동북지역 최대의 무역항이자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고, 그 이후부터 일본은 대련을 만주지역 내 최대의 대외무역항으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1920년대 대련은 중국 5대 항구(광주, 상해, 한구, 천진, 대련) 가운데 대외무역 비중이 2번째로 높은 도시를 기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련지역에 여러 인프라를 건설했고, 자국민들을 대거 대련으로 이주시키고도 했다.⁶⁸⁾ 영구와 대련을 제외한 나머지 만주지역 도시들 가운데 봉천(심양)시 또한 “1903년 체결된 청일추가통상항해조약과 1905년 체결된 청일선호조약”에 따라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이 인정되었고,⁶⁹⁾ 또 만주국이 건

65) 물론 영구와 대련 모두 20세기 초반 일본의 주도하에 도시구조와 외형의 변화, 그리고 산업 및 도시발전 경로가 좌우되었다. 게다가 1910년대 일본은 대련항을 새로운 운송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구항을 견제하기도 했다(김영신, 2007, 앞의 책, 79쪽).

66) 김영신, 2007, 앞의 책, 88쪽.

67) 김영신, 2007, 앞의 책, 90쪽.

68) 일본의 지배하에서 대련지역으로 몰려든 북중국의 자본과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Gao, Xiaofei, 2018, “Maritime Manchuria: Empire, State, and Laborers, 1905-2016,” *Diss*, UC Santa Cruz, p.40.

설된 이후 수도가 신경(창춘)으로 정해지자, 봉천(심양)은 상공업 도시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런 근대적·자본주의적 공간으로 탈바꿈된 만주도시들을 연구하는데, '만주 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 논의는 효과적인 이론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⁷⁰⁾ 19세기 중반 이래 만주지역 도시들의 성장 및 발전경로는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달랐으며, 변화를 일으킨 원인 또한 내부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동 되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만주도시들에서 등장한 도시문화는 한국·일본·중국 등과 같은 동아시아권 문화 뿐만 아니라 서구권 문화들까지 혼합되어 생산·소비되는 장소였다. 즉 글로벌한 도시문화가 탄생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만주도시들의 성장은 근대적 자본주의적 공간의 창출과 이어지는데, 실제 근대 만주지역 도시공간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자본 및 인적·물적 자원과 결부되어 생산력의 진전 및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만주도시들의 근대적·자본주의적 공간으로의 전환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리적 확장과 결부된다.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리적 확장은 한편으로 더 많은 자본이 형성되는 장소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및 네트워크가 확장됨을 뜻하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① 초국

69) 김경일 외, 2004, 앞의 책, 93쪽.

70) 관련해 앤서니 D. 킹(Anthony D. King)은 식민지 도시란 식민지 모국의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함께 살면서 식민지 사회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곳이라고 주장했다(King, Anthony D, 1990a, *Global Cities: Post-Imperialis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ndon*, Routledge). 또한 식민 도시는 모국의 제도, 정치, 경제, 문화를 식민지로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이 산업화나 근대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킹은 식민지 항구도시가 자본주의 논리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식민지 도시와 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경학·지정학·지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ing, Anthony D, 1990b,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Economy: Cultural and Spatial Foundations of the World Urban System*, Routledge). 예컨대 만주국 건립 이후 근대 만주도시 문화를 유토피아적 이미지 반대로 디스토피아적 세계이자 인종적 차별이 만연한 장소로 그리곤 하지만(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99-135쪽),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재현하는 밀바탕에는 바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부구조들이 있다. 도시문화, 도시공간의 변화 및 도시의 집중화, 근대산업의 등장, 수출지향적 작물재배, 국제적인 분업체계에 들어있는 자본가 및 노동자의 등장, 그리고 초국가적인 상품거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하부구조의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세계체계분석은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적인 분업체계와의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며(예) 수출지향적인 콩 재배 및 상품화, 그리고 콩의 해외수출에 종사하는 자들의 등장과 대규모 인구이동,⁷¹⁾ ② 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글로벌 상품 네트워크와 동조되며(예) 콩을 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해외로부터 수입 물품을 받음), ③ 나아가 그 지역의 자본가 및 노동자들이 글로벌한 상품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예) 매판자본가들의 등장 및 외국상점 및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등장)를 맺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확장된 지역 속에서 자본주의적 축적방식의 논리-자본주의화된 공간 속에서는 나타나는 착취, 폭력, 혹은 부등가 교환-이 등장한다는 것'⁷²⁾인데 근대 만주지역 내에서 우리는 상황들이 벌어졌음을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구의 신시가지는 일본인들의 무력에 의해 헐값으로 팔렸으며, 일본이 대련을 만주 국제상업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책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 국제적 수출입항으로서 입지를 다져 나갔던 영구는 1910년대를 기점으로 쇠락을 경험했다. 나아가 영국상인들의 만주지역 대두 교역권 요청을 청 정부가 허락함에 따라, 기존 만주지역의 콩 유통권을 선점하고 있던 중국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넷째는 근대 만주지역에서 만들어진 인종간, 계급간, 민족간 서열관계이다. 근대 만주지역은 새로운 근대적 도시공간이자 식민지 공간이었고, 그에 따라 이곳에서는 인종차별 및 위계화된 민족등급이 서스럼없이 행해지곤 했는데, 이런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세계체계 내 편입관점은 나름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만주국을 '순수성의 권위체계'로 이해하고 만주국이 동아시아 근대의 정체성이라 주장한 두아라와 달리,⁷³⁾ 세계체계분석은 순수성의 상징적·경험적 체제에

71) 1878년 이후 대규모 한족이 만주지역으로 이주해 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재배하기 위함이었다(위르겐 오스트함펠, 박종일 역, 2021, 『대변혁: 19세기의 풍경』 1, 한길사, 460쪽; Gottschang, Thomas R and Diana Lary, 2000, *Swallows and Settlers: The Great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49-50.

72) Braudel, Fernand, 198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The Wheels of Commerce Volume II*, Harper & Row, pp.588-589; Wallerstein, Immanuel, 1991, "Braudel on Capitalism, or Everything Upside Down,"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63(2), p.356.

73) 두아라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의 원천(순수성을 통한 권위주의적 통치성 찾기)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만주국에 관심을 가졌을 뿐, 제국주의 일본이 새로운 문명건설 프로젝트로 제시한 '만주국 국가 만들기' 속에 들어있는 계급적·인종적·민족적 차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두아라는 만주

서 발견되는 인종적 혹은 민족적 차별과 폭력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⁷⁴⁾ 만주국을 도덕적·전통적·가부장적·권위주의적·일방적·폐쇄적인 통치성으로 구조해나가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과잉민족주의는 만주국 내부를 향한 인종주의적·민족주의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종종 작동되기도 한다.⁷⁵⁾ 실제 윤희탁과 김주용은 만주국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민족적 차별과 직업위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⁷⁶⁾ 또한 김태국(2007: 177-181)은 만주국 내 도시 거주 한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⁷⁷⁾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했듯 “제국주의적 민

국 식민통치에서 확인되는 식민통치권력과 피식민 민족들 간의 불균등한 관계, 그리고 피식민 민족들 사이의 불협화음 등보다는 일본·중국·한국을 아우르는 근대적인 통치성의 공통된 기반을 찾는 데에만 주력했다. 실제 두이라는 만주국의 문명담론, 만주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원시림의 이미지, 그리고 자기 희생적 여성의 모델, 전통적인 유교에 바탕을 둔 문명화과정, 토착적이고도 향토적인 문화를 수호 등이 만주국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제국주의적 운영방식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근대민족 및 근대국가형성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특징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만주국에 지향한 순수성에 대한 수호는 아이러니하게 근대적 통치의 게젤사프트적 성격보다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을 강화했다고 바라봤다. 문제는 두아라가 지적한 만주지역의 통치성 속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이 만주지역에서 지키려고 했던 순수성에서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자본주의 속에서 발현되는 민족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이 등장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윌러스틴은 특정한 국가의 경제 내부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혹은 노동력의 에스닉화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두아라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나 토착적인 이상향의 발현과 수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가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위계화된 에스닉 그룹들 사이의 인종적 차별의 정당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국가나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안정된 구조화와 관계될 수도 있다. 만주국 내에서 일본인들(지배 민족)과 중국인 및 조선인(피지배 민족) 사이에서 나타나는 직업적, 신분적 위계 그리고 임금격차는 결과적으로 능력에 기초해서 보수를 준다는 근대적 가치들 예컨대 능력주의나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닌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직업-보수상의 위계일 수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게젤사프트적 특징보다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이다(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엘 윌러스틴, 김상운 역, 2022, 『인종, 국민, 계급: 모호한 정체성들』, 장원, 163-164쪽).

74) 예컨대 일본당국은 만주농촌사회에서 토착 중국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조선인 이민자들을 입식시켰다. 이는 만주지역 내 중국인과 조선인을 의도적으로 갈등상황으로 내몰 일본당국의 대표적 통치기술인 동시에, 일본인들을 만주지역 내 지배민족으로 위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75) 발리바르, 윌러스틴, 2022, 앞의 책, 132-133쪽.

76) 윤희탁, 2013, 앞의 책, 8장; 김주용, 2007, 「일제강점기 한인의 만주 이주와 도시지역의 구조변화」, 『근대 만주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38-139쪽.

77) 김태국, 2007, 「만주지역 한인의 도시 거주지 형성 과정: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근대 만주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77-181쪽. 나아가 만주사변 및 만주국 설립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만주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 한인들은 자신들의 정착지를 상실하고 도시의 빈민 노동자로 편입되어야만 했다(김주용, 2007, 앞의 책,

족주의는 조건이 조성돼 있으면 인종차별이 자랄 토양"이 되기도 하는데,⁷⁸⁾ 이런 만주국 내부에서 작동되는 인종 및 민족적 차별 행위, 그리고 민족에 따른 직업 위계는 세계경제 내 노동의 수직적 분업체계와도 연관될 수 있다. 즉 만주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됨으로 인해, 만주경제체제는 나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반대로 만주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새로운 저임금 노동자와 자본축적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적 차별과 위계화된 인종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고화되기도 하는데,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직된 민족적 차별 및 위계,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는 (때로는)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사회적·정치적 혼란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마법의 공식이다.”⁷⁹⁾

다섯째는 일본과 만주국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화변용(transculturalization) 및 탈 식민지 시기 이후 만주국의 정치-경제-문화가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에도 편입관점은 유용하다. 앤서니 D. 킹은 1980년대 기존의 세계체계분석이 너무도 정치경제적 부분에만 몰두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식민지 도시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문화적 변화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킹은 식민지 도시들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들, 예컨대 식민지 모국의 문화와 식민지 문화와 섞여 새로운 제 3의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제 3의 문화는 식민지 도시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⁸⁰⁾ 중심부 사회에서 인정받는 문화 그리고 대도시 중간계급들 이상에서 향유되는 주요 문화를 첫 번째(first culture)라고 한다면, 두 번째(second culture)는 주변부에서 형성된 토착적·개성적·특수한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third culture)는 첫 번째

142쪽).

78) 알렉스 캘리니코스, 차승일 역, 2020,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책갈피, 76쪽.

79) Balibar, Etienne and Immanuel Wallerstein, 1991, *Race, Nation, and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p.33.

80) King, Anthony D, 1995, *The Bungalow: The Production of a Global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문화와 두 번째 문화가 서로 부딪치거나 어울려 만들어지는 제 3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민지역(도시)의 문화이다.⁸¹⁾ 식민지역(도시)의 문화에는 상징·사회구조·사회관계 및 행위의 유형 등과 같은 제도적·이데올로기·행동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 문학, 언어 및 사회적 신념 및 음악과 같은 문화적 가공물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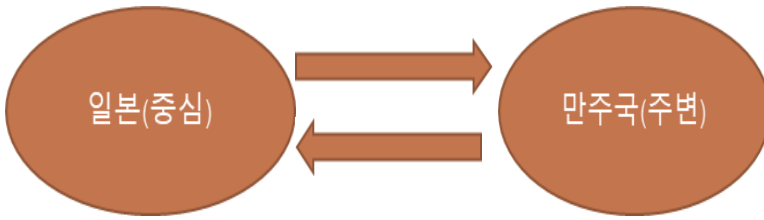
이런 킹의 주장은 만주지역에서 관찰되는 문화변용의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한인소설들에서 우리는 ① 만주국이 가져다주는 해방적이고도 트랜스내셔널한 이미지, ② 동아시아적 근대 및 새로운 질서체계를 만들어가고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⁸²⁾ 만주에 대한 이런 표상들은 일본의 문화도 아니고, 조선인들의 문화도 아닌 그야말로 제3의 문화이자 만주지역에서만 나타난 문화변용이었다. 또한 킹은 식민지역(도시)에서 만들어진 제 3의 문화가 중심부 지역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바라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로서 킹은 첫 번째 문화를 만들어 낸 곳을 영국과 영국 지역(도시)이라 상정하고, 두 번째 문화를 만들어 낸 곳을 인도와 인도지역이라 지칭했다. 그리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시기부터 제 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킹은 식민지역(도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적 상호작용 및 문화변용이 영국의 첫 번째 문화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³⁾ 이는 만주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만주국에서 등장한 국립중앙박물관(제 3의 문화)는 전후 일본 박물관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⁸⁴⁾

81) King, Anthony D, [1976]2007, *Colonial Urban Development: Culture, Social Powers and Environment*, Routledge & Kegan Paul, pp.64-65.

82) 정중현, 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229-260쪽; 천춘화, 2014,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83) King, *Colonial Urban Development*, p.65. 이런 면에서 King은 식민모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만들어진 식민주의는 상호연결(interrelated)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라고 언급했다(King, *Global Cities*, p.55).

84) 두아라, 2008, 앞의 책, 316쪽.



[그림 1] 일본과 만주국 사이의 문화변용

※ 일본과 만주국 사이의 문화변용: 중심이 주변에 일방적으로/지속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이에 기초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점을 취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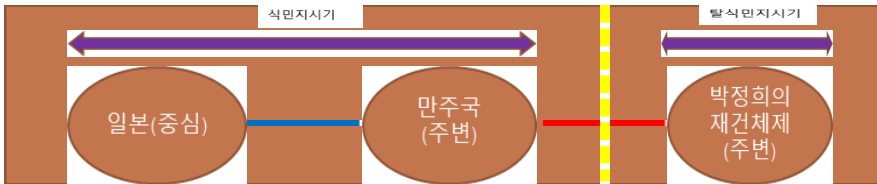
이런 문화변용은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 역사적으로 벌어졌기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외부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즉, 자본주의 세계체계 논리가 편입지역에 침투-이식되는 것만큼, 편입되는 지역의 반응(저항운동 포함)과 함께 편입된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새로운 ‘중심-주변’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인 것이다.⁸⁵⁾

나아가 킹은 세계체계론의 중심부-주변부 관계를 도입하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탈식민주의화된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즉, 제국주의 시절 다수의 식민지 도시들은 양가적 심상지리(식민지 모국 문화에 한편으로는 저항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모국 문화를 우선시하는 경향)가 형성되는데, 이런 심상지리는 탈식민주의화된 시기에도 지속된다고 킹은 바라봤다. 그에 따라, 탈식민지 시기에도 식민지 본국의 경험을 가진 주요 중심부 국가, 지역, 도시들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중심’이 되고,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지역, 도시들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주변’이 된다. 그리고 다수의 탈식민지 시기 주변부 문화는 중심부 문화에 의존해 발전한다고 킹은 주장했다.⁸⁶⁾ 킹의 이런 관점에 기초할 때, 우리

85) Boswell, Terry, 1989, "World Revolutions and Revolutions in the World-System," in Terry Boswell, ed., *Revolution in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pp.1-16; Goldfrank, Walter L., 1979, "Theories of revolution and revolution without theory," *Theory and Society* 7(1-2), pp.135-165.

86) King, *Global Cities*, pp.34-37.

는 남한의 박정희 정권과 북한의 김일성정권에 의해 주도된 남-북한 국가체제 이데올로기가 만주에서 일본제국이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박정희 정권 시절 “재건 체제 지도자들은 통제경제와 동원 등 경직된 일본의 모던을 만주국을 통해 모방하고 변용했는데.”⁸⁷⁾ 이는 킹이 주장한 탈식민주의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심-주변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현대의 다수 국가 및 지역(도시)문화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에 형성된 식민모국-식민지 시기의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나아가 하나의 세계 경제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이를 도시(지역)문화, 국가, 식민주의, 그리고 세계경제 등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킹은 바라봤는데,⁸⁸⁾ 이는 근대만주지역 연구의 확장에 있어서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은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근대 만주지역-박정희 시절의 국가 이데올로기 및 통치문화, 그리고 중심부-주변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세계체계적 논리와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체계 내 편입논의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 탈식민지 시기 이후에도 이어진 만주국 주변국의 관계

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근대만주지역연구가 어떻게 세계체계 관점의 내재적·방법론적 한계 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근대만주지역연구를 연구·분석·해

87) 한석정, 2016, 앞의 책, 40쪽.

88)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96쪽.

석하는데 있어 세계체계관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국내 근대 만주연구와 세계체계분석은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계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만주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체계분석(관점)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했던 과거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만주지역연구와 세계체계 분석 사이의 교집합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국내에서 이루어진 근대 만주지역연구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보았고, 이에 기초해 어떤 유형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했다. 이후 근대 만주지역의 발전사 및 만주지역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세계체계분석의 한계점인 유럽중심주의와 전체론적·기능론적 접근을 지적하는 한편, 근대 만주지역의 역동성을 살피기 위한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이 필요함을 주시시켰다. 나아가 저자는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만 제시했지만, 분명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근대 만주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주지역이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아가 만주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근·현대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해 주변국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은 분명 근대 만주지역연구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만주연구는 (기존의) 국가단위 분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만주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그리기 위해 시작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만주지역과 비만주지역이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체계분석과 근대만주연구의 결합은 만주지역과 비만주지역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근대만주지역을 연구한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세계체계분석의 논리들을 사용했음에도, 이들이 ‘근대세계체계분석’이라고 호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세계체계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특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만주지역 연구에서 세계체계분석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이다. 예컨대 근대 만주지역 내 주요 도시들의 등장을 분석했던 김영신, 김태국, 취샤오판 등은 ‘세계체계분석’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세계체계분석의 편입에서 논의되는 공간적 변화 및 도시 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밀도 높은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세계체계 내 편입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기존연구들의 경우, 만주지역 내 각 도시들이 어떻게 초국가적인 단위체인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결합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만들어지고, 또 도시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시의 공간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문화/정치적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초국가적인 사회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편입이라는 이론적 토대가 가지는 강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서 향후 연구주제로서 ‘만주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으로 넣어야 할지 또한 고민이다. 이런 고민은 결과적으로 1) 근대 만주의 경험이 동아시아 근대를 추동한 장본인인가 아니면 반대로 동아시아적 근대를 늦추고 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끈 주동자인가? 2) 근대만주지역의 식민경험을 동아시아 근대화의 요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성장 및 의존적 발전의 원인으로 치부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도 결부될 수 있기에 중요한 논쟁지점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대만주연구와 세계체계 분석의 교차점을 찾아보고자 시도된 첫 연구이기에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 김영신, 2007, 「개항, 조차와 근대 만주: 신흥도시의 흥기」,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숙, 2017, 「만주사변의 전개와 식민지 조선-조선군과 조선총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 김주용, 2007, 「일제강점기 한인의 만주 이주와 도시지역의 구조변화」,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주용, 2013, 「만주의 자연환경」, 『만주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 김태국, 2007, 「만주지역 한인의 도시 거주지 형성 과정: 만주국 시기를 중심으로」,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나카미 다사오, 박선영 역, 2013, 「역사 속의 ‘만주’상」,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 두다료노크, S. M. 외, 양승조 역, 2018,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진인진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만주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 두아라, 프래신짓트,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리처드 리, 백승욱·김영아 역, 2011, 「지식의 구조」, 『이행의 시대: 세계체계의 궤적, 1945-2025』, 창작과 비평사
- 말로제모프, J, 석화정 역,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지식산업사
- 박병광, 2017, 「북중관계의 맹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조선인의 만주이주와 초기 항일 투쟁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23
- 이광근, 2020, 「세계체계 분석의 형성과 발전: 윌러스틴의 지적 여정과 비판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 44(1)
- 이매뉴얼 윌러스틴, 나종일 외 역, 2001, 『근대세계체계 1: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까치
- 이삼성, 2020,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한길사
- 야마모토 유조, 박선영 역, 2013, 「만주국: 어느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얼 윌러스틴, 김상운 역, 2022, 『인종, 국민, 계급: 모호한 정체성들』, 장원
- 위르겐 오스트함펠, 박종일 역, 2021, 『대변혁: 19세기의 풍경』 1, 한길사

- 유성희, 2021,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과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기: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적 역동성」, 『사회와 역사』 131
- 유성희, 2022, 「『세계체계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아시아리뷰』 12(2)
- 유성희, 주경철·유성희 편, 2023, 「19세기 태평양 세력의 등장과 메가아시아의 부상」, 『해양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 유지원, 2007, 「청대 동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만주 도시 성격의 변화」,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영인, 2015,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계체계 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의 가능성」, 『만주연구』 20
- 윤희탁, 2013,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해안
- 정세진, 2018, 「19세기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의 과정과 목적-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2(2)
- 정종현, 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 알렉스 캘리니코스, 차승일 역, 2020,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책갈피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 최덕규, 2004, 「러시아의 대만주정책과 동철철도(1894-1904)」, 『만주연구』 1
- 최문형, 2013, 『일본의 만주 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만주와 중국대륙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 취샤오판, 박우 역, 2016, 『중국 동북지역 도시사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진인진
- 천춘화, 2014,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석정, 1999, 「대동아공영권과 세계체제론의 적용에 대한 시론」, 『한국사회학』 33
- 한석정, 2003,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37(5)
- 한석정, 2009, 「총론」,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 한석정, 2016,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 한지현, 2019, 「서구학계 근현대 만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 『만주연구』 28
- 長山·宋康鎬, 2010, 「manju '滿洲' 명칭 어원분석」, 『만주연구』 10
- Abu-Lughod, Janet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David L, 1985, *Imperialism and Idealism: American Diplomats in China, 1861-98*, Indiana University Press

- Aronowitz, Stanley, 1981,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Immanuel Wallerstein's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0(4)
- Babones, Salvatore, 2015, "What is world-systems analysis? Distinguishing theory from perspective," *Thesis Eleven* 127(1)
- Balibar, Etienne and Immanuel Wallerstein, 1991, *Race, Nation, and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 Boswell, Terry, 1989, "World Revolutions and Revolutions in the World-System," in Terry Boswell., ed., *Revolution in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 Braudel, Fernand, 198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The Wheels of Commerce Volume II*, Harper & Row
- Crawcour, E. Sydney, 1989, "Economic Change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John W. Hall, Marious B. Jansen, Madoka Kanai,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ara, Prasenjit, 1997, "Transnationalism and the Predicament of Sovereignty: China, 1900-1945,"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4).
- Du Bois, W. E. B., 1994, *The Souls of Black Folk*, Gramercy Books
- Dudden, Arthur Power, 2004: "Introduction," in Arthur Power Dudden, ed., *American Empire in the Pacific: From Trade to Strategic Balance, 1700-1922 Volume IX*, Routledge, xv-xl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 Elliot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 Gao, Xiaofei, 2018, "Maritime Manchuria: Empire, State, and Laborers, 1905-2016," *Dissertation*, UC Santa Cruz
- Goldfrank, Walter L, 1979 "Theories of revolution and revolution without theory," *Theory and Society* 7(1-2)
- Gottschang, Thomas R and Diana Lary. 2000. *Swallows and Settlers: The Great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all, John R, 1984, "World-System holism and Colonial Brazilian Agriculture: A Critical Case Analysi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9(2)
- Hall, Thomas D, 2012, "Incorporation into and Merger of World-Systems," in Babones, S. J and Chase-Dunn,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Routledge
- 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1981,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World-Economy," in *Dynamics of World Development*, Richard Rubinson, ed, Sage

- Iriye, Akira, 1989, "Japan's drive to great-power status," in John W. Hall, Marious B. Jansen, Madoka Kanai,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mel, Michael S., 1982, "Review on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1(2)
- King, Anthony D., [1976]2007, *Colonial Urban Development: Culture, Social Powers and Environment*, Routledge & Kegan Paul
- King, Anthony D., 1990a, *Global Cities: Post-Imperialis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ndon*, Routledge
- King, Anthony D., 1990b,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Economy: Cultural and Spatial Foundations of the World Urban System*, Routledge
- King, Anthony D., 1995. *The Bungalow: The Production of a Global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oji, Hirata, 2018, "Steel Metropolis: Industrial Manchuria and the Making of Chinese Socialism, 1916-1964,"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Lattimore, Owen, 1932,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The MacMillan Company
-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3)
- Myers, Ramon H, 1996, "Creating a Modern Enclave Economy: The Economic Integration of Japan, Manchuria, and North China, 1932-1945," in Peter Duus,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k, Hyun O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ke University Press
- Ru, Sung Hee, 2023, "A Comparison of Weber's and Wallerstein's Historical Methods: The Contribution of Weber's Methods in Developing Existing world-systems Methods," *Journal of Asian Sociology* 52(1)
- Skocpol, Theda, 1979, "Review: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89, *The Modern World-System Volume III*, Academic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91, "Braudel on Capitalism, or Everything Upside Down,"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63(2)
- Wallerstein, Immanuel, 2004,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2012, "World-systems analysis as a knowledge movement," in

- Babones S. J. and Chase-Dunn C.,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Routledge
- Wells, Richard Evan, 2018, "The Manchurian Bean: How the Soybean Shaped the Modern History of China's Northeast, 1862-1945,"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amamuro, Shin'ichi, 2006, *Manchuria: Under Japanese Domination*, Joshua A. Fogel, t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Zhao, Hai, 2015, "Manchurian Atlas: Competitive Geopolitics, Planned Industrialization, and the Rise of Heavy Industrial State in Northeast China, 1918-1954,"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투고일: 2024년 03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04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22일

■ Abstract ■

World Systems Analysis and the Study of Modern Manchuria : Exploring Interdisciplinary Intersections

Ru, Sung-he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World-systems analysis has rarely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he distinct historical evolution and dynamics of the modern Manchurian region, a gap noted by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cademics. This study evaluates the viability of incorporating world-systems analysis into modern Manchurian studies. It begins by reviewing existing research on modern Manchuria within Korea, identifying gaps and opportunities. The paper then addresses the shortcomings of world-systems analysis by demonstrating how insights from Manchurian studies can provide corrective perspectives. It also proposes methodologies for embedding world-systems analysis into Manchurian studies, aiming to uncover synergies between these disciplines. By forging this link, the study aspires to enrich both regional studies and global systemic analyses,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Manchuria's place in world history.

Key words: Modern Manchuria, World-systems analysis, Regional studies, Manchukuo, and Manchurian studies